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최 용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머리말

예로부터 '유럽의 빵공장', '동유럽의 진주'라고 불리어져 왔으며, 드라큘라 전설의 근원지로 유명한 나라가 있다. 그 주인공은 루마니아(Romania)다. '로마제국의 후손'이라는 뜻의 루마니아는 흑해 연안 남동유럽의 나라이다.

발칸반도 북쪽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터키와 중동, 서쪽으로는 유럽연합(EU)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루마니아는 공산화 이전에 농업강국으로 일컬어져 왔으나, 공산화 이후 무리한 중공업 육성정책과 외채상환 등으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까지 몰락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자본 부족과 현대화 부진으로 인해 고전 중이다. 그러나 2007년 EU 가입으로 농업부문은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조건과 넓고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농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EU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yonghochoi@krei.re.kr 02-3299-4191).

루마니아는 유명한 독재자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의 1인 지배체제를 넘어 혁명적 과도기를 지나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급진적인 개혁·개방이라는 일련의 정치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정치적 발전과 더불어 취했던 경제정책과 그에 대한 성과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탈사회주의 과정과 그 이후 루마니아 농업의 변화는 향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북한의 농업을 전망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1990년 3월 수교 이후 2008년 9월 루마니아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5년은 한·루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에 좋은 기회이다.

그림 1 루마니아 지도

자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6r2142b).

2. 루마니아 개요

루마니아의 정치·경제적 역사는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과도하고 편중된 공업화정책은 현재 농업부문의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근 정치변혁과 경제개혁은 루마니아 농업부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2.1. 일반 현황

루마니아의 국토면적은 약 23만 8,000㎢로, 한반도의 1.1배정도이다. 2014년 루마니아의 인구는 2,1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구(舊)공산권 동유럽국가 중 EU에 편입된 12개국 중 폴란드(3,840만 명)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크다. 루마니아의 수도는 인구 188만 명의 부쿠레슈티(Bucuresti)[1]이며, 주요 도시로는 이아시(Iasi, 35만 명), 콘스탄차(Constanta, 32.7만 명), 티미쇼아라(Timisoara, 33만 명), 클루지-나포카(Cluj-Napoca, 33만 명), 브라쇼브(Brasov, 31.6만 명), 오라데아(Oradea, 31.4만 명) 등이다(KOTRA 2014).

주변 동유럽국가 대부분이 슬라브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루마니아는 라틴계 민족국가로 분류되며, 루마니아인이 83%, 헝가리인이 6%, 로마인이 3%로 구성되어 있다. 루마니아인들은 초등학교부터 고유 언어인 루마니아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 루마니아인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 정치

과거 루마니아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 통일이라는 숙제를 가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마니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추축국(Axis Powers)[2] 쪽에 가담하여 군을 소련에 대항하여 파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소련은 베사라비아(Basarabia) 지역을 병합했으며 루마니아의 공산화를 추진하였다. 게오르게 게오르규-데지(Gheorghe Gheorghiu-Dej) 사후 1965년 집권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는 게오르규-데지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루마니아식 스탈린주의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에 철저한 주

1) 영어식 표현은 부카레스트(Bucharest)임.
2)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측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세력을 일컬음.

민통제, 개인 우상화, 족벌정치 등을 가미시켰다(임원혁 1998).[3] 1980년대 후반 경제난과 강압정치로 국내 반발이 고조되고, 인권 탄압 및 개혁 거부로 그는 국제적 고립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1989년 12월 지방 대도시인 티미쇼아라(Timisoara)시에서 시작된 민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군부의 분열로 진압에 실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4년간에 이르는 독재정권은 1989년 12월 25일 차우세스쿠 부부의 사형과 함께 붕괴된다.

1989년 12월 혁명 이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변모한 현재, 루마니아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이원집정부제)이며, 의회는 양원제(상원과 하원)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1월 대선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자유당 당수와 사회자유연합 출신의 빅토르 폰타(Victor Ponta) 총리가 격돌하였다. 11월 16일에 실시된 2차 선거에서 요하니스 당수가 승리함에 따라, 요하니스 대통령과 폰타 총리체제가 정국을 운영 중이다. 요하니스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부패척결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친기업 자유경제적 기조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경제·정치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4]

2.3. 경제

2.3.1. 경제 동향

사회주의 시대 루마니아는 초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 차우세스쿠는 집권 이후 스탈린식 경제개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그는 루마니아를 농업국가로 묶어두려는 소련의 경제통합정책에 반발하여 탈소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강력한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한다(임원혁 1998). 이는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현재의 농업 부진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공업화정책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 세계경제 침체, 외채위기 등으로 인하여 중공업 육성정책은 타격을 받게 되고, 무리한 외채상환정책 등으로 경제침체는 지속되었다.

---

3) 차우세스쿠는 김일성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71년 그의 북한 방문은 집권 후반기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대규모 건축공사 추진에 영향을 미침. 또한 그는 1980년 각료회의 제1부수상직에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쿠(Elena Ceausescu)를 임명하며 족벌 독재체제를 강화함.

4) 현 사회자유연합 정부는 좌·우파 연합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면서 소득세, 단일세율 유지 등 기업투자환경을 증진시키는 정부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국가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국가 및 지방 제도 개편, 의회구조 개선 등을 토의하고 있음.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해 루마니아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공산정권 붕괴 후 들어선 민주정부는 토지·국영기업 사유화, 민간기업 활동보장, 대외투자 유치 등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체제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저하되었다. 또한 대외투자 유치도 부진하였고 이에 따라 개혁추진도 지연되었다.

1992년 11월 니콜라에 바카로이우(Nikolae Vacaroiu) 총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IMF와 서방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추진한다. 이 결과 1993년 하반기를 고비로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인플레가 둔화되는 등 경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된다. 특히 1995년에 루마니아는 중동유럽국가 중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한다. 그러나 1996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우파 정부는 연정내부의 갈등으로 경제구조 개편 및 민영화 등 개혁추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여 경제 불안을 야기한 결과 1997~1999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5%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2001년 출범한 사회민주당 정부는 1989년 민주화 당시 주역인 이온 일리에스쿠(Ion Iliescu)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EU 가입이라는 구체적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1년 이래 연간 5%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지속적인 경제개혁에 따른 IMF 및 EU에서 지원 자금이 유입되고 대외신인도 개선에 따른 외자유치가 증가하자, 국내 고정투자도 확대되었으며 국내소비시장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인근 유럽 등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도 호조세를 띄었다. 2007년 1월 1일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대외투자 유치와 건전한 시장경제 전환촉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루마니아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발발과 EU경제권 불황으로 인해 2009년 마이너스 7.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루마니아화(Ron) 폭락 등을 경험하며 경제위기에 봉착한다. 이에 루마니아는 2009년 3월에 IMF와 스탠바이 협정을 체결하여 IMF, EU, EIB, EBRD로부터 2~3년간 총 195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한다. 루마니아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감축,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19%→24%) 등 만성적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불만이 커지면서, 2011~2012년 총리 내각의 잦은 교체, 2012년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인하여 루마니아화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있었던 반면, 국제금융기구들과 약속한 프로그

램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호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5)]

2.3.2. 경제 현황

2014년 현재 루마니아의 GDP는 전년대비 9.1% 성장하여 약 1,516억 유로이다. 이 규모는 슬로바키아의 2배, 불가리아의 3배 이상이나, 1인당 GDP는 EU 28개 회원국 중 불가리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GDP 성장률은 2.5~2.9%로 예상되고 있다.[6)] 향후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공공부문 및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EU펀드의 흡수율, 유럽의 경제상황, 농산물 작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루마니아 GDP,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2007~2014년)

단위: 억 유로, %,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 순위
GDP	1,247	1,398	1,182	1,243	1,313	1,317	1,390	1,516	
GDP 성장률		12.1	-15.5	5.2	5.6	0.3	5.5	9.1	
1인당 GDP	5,800	6,500	5,500	5,800	6,137	6,545	6,908	7,455	27위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

루마니아의 대외 교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4년 현재 수출은 525억 유로, 수입은 585억 유로로 총 무역액은 1,110억 유로 규모이다.

표 2 루마니아 무역 현황(2007~2014년)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수지	-21.5	-22.52	-9.95	-9.65	-9.73	-9.63	-5.7	-6.0
수출	29.4	33.61	29	37.25	45	45.05	49.56	52.5
수입	50.9	56.13	38.95	46.90	54.73	54.68	55.2	58.5
무역액	80.3	89.74	67.95	84.15	99.73	99.73	104.76	111.0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

루마니아의 대(對) EU 무역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대 EU

5) 루마니아는 2011년 3월에 IMF 그리고 2013년 9월에 IMF 및 EU와 두 차례 예방적 스탠바이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사정 양호로 자금은 인출되지 않았음.

6) 루마니아 정부는 2.8%(2015년 2월), IMF는 2.5%(2014년 12월), EU는 2.7%(2015년 2월), 세계은행은 2.9%(2015년 1월)의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음.

비중이 각각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등이 중요한 교역국들이다.

표 3 2013년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

단위: 백만 유로, %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합계	49564.2	100.0	합계	55268.1	100.0
1. 독일	9200.3	18.6	1. 독일	10305.7	18.6
2. 이탈리아	5698.7	11.5	2. 이탈리아	6071.4	11.0
3. 프랑스	3357.8	6.8	3. 헝가리	4553.7	8.2
4. 터키	2545.2	5.1	4. 프랑스	3170.9	5.7
5. 헝가리	2451.5	4.9	5. 폴란드	2457.4	4.4
6. 영국	2032.3	4.1	6. 러시아	2358.8	4.3
7. 불가리아	1697.2	3.4	7. 오스트리아	2208.0	4.0
8. 네덜란드	1538.1	3.1	8. 네덜란드	2035.9	3.7
9. 러시아	1381.8	2.8	9. 중국	1968.5	3.6
10. 스페인	1207.4	2.4	10. 터키	1869.1	3.4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장비, 자동차·운송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장비, 광물 등이다. 2013년 수출 실적에서 기계류, 차량 및 차량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 2013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기계 · 장비	12,466.3	25.2	1. 기계 · 장비	15,208.5	27.5
2. 자동차 · 운송장비	8,435.1	17.0	2. 광물	5,844.4	10.6
3. 금속	4,750.6	9.6	3. 금속	5,906.6	10.7
4. 섬유	3,735.9	7.5	4. 화학제품	5,832.9	10.6
5. 광물	2,990.3	6.0	5. 자동차 · 운송장비	4,309.1	7.8
6. 플라스틱 · 고무	2,797.3	5.6	6. 플라스틱 · 고무	4,025.2	7.3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유럽통계청(Eurostat)은 2014년 루마니아의 물가상승률을 1.4%로 예상(2014년 12월 발표)했으며,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루마니아 중앙은행이 2.1%(2015년 2월 발표), EU에서 1.2%(2015년 2월 발표)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표 5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2014)
인플레이션율	4.84	7.85	5.59	6.09	3.2	3.4	3.2	1.4	0.6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은 2012년 5.25%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2015년 4월 현재 2.0%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루마니아 화폐(Lei)[7]의 미 달러 환율은 2015년 4월 현재 4.11RON/USD 수준으로 지난 1년 간 약 25%가 상승하였다. 대(對) 유로 환율은 2012년 8월 대내외 정세 불안정으로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으나, 2012년 12월 4.42RON/유로로 안정되었고, 2015년 4월 현재 4.41RON/유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8]

2014년 말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6.4%이며, 이는 EU에서 8번째로 낮은 순위이다. EU는 루마니아의 연평균 실업률을 2015년에 6.9%, 2016년에 6.8%로 전망(2015년 2월 발표)하고 있다.

표 6 연평균 실업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2014)
실업률	6.2	5.8	7.8	7.0	5.2	5.6	7.1	6.4	9.9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루마니아의 법정 월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있다. 2013년에 800 RON, 2014년 상반기에 850 RON, 2014년 상반기에 900 RON이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5년 1월 현재 월 최저임금은 975 RON[9]이며, 루마니아 정부는 2016년까지 1,200 RON까지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EU 가입 당시 7년 간(2013년 말까지) EU 국가로의 노동시장 진출의 자유화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조치가 폐지된 상태이다.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자의 대 GDP 비중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EU 회원국의 요건이자 IMF와 합의한 목표 -3%

7) 루마니아 화폐의 단위는 레이(Lei, 단수형은 Leu)이며 같은 단위인 Ron으로 표기함.
8) 대(對) 원화 환율은 2015년 1월 현재 1레이 당 약 275.25원임.
9) 한화로 약 26만 8,000원임.

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 IMF, EC는 2015년 재정적자의 대 GDP 비중이 각각 -1.8%, -1.8%,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2015년 2월 발표)하고 있다.

표 7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2013)
재정적자의 對 GDP 비중	-2.5	-5.7	-9	-6.8	-5.6	-2.8	-2.6	-1.85	-3.3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표 8 재정 규모

단위: 10억 RON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세입예산	153.18	197.5	209.28	216.8	226.36
세출예산	194.51	211.1	222.67	231.29	239.36
재정수지	-41.36	-13.6	-13.39	-14.4	-13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재정부).

루마니아의 EU 가입(2007년)을 전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급증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종료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FDI는 전년대비 약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 감소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루마니아 정부의 특수건축물세 및 유류할증세 도입, 전기·천연가스 가격 인상 조치, 정책·법률의 일관성·예측가능성 부족,[10] 외국인투자진흥을 위한 정부 내 특별기관 부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부의 편의 제공 노력 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 FDI 유인(誘引)에 대한 루마니아의 장점은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EU 회원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이라는 내수시장의 잠재력, 발칸·러시아·CIS 지역 등으로의 진출 관문이 된다는 지경학적 위치의 중요성, 저렴한 지가(地價)로 인한 향후 부동산·공장부지 가격상승 잠재력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외국인직접투자	7.24	9.49	3.49	2.2	1.81	1.6	2.71	2.42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10)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등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정책 변경 등.

표 10 주요 누적 투자국(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투자액	비중
1. 네덜란드	14,624	22.4
2. 오스트리아	11,438	18.5
3. 독일	6,744	11.0
4. 프랑스	4,568	8.9
5. 이탈리아	2,813	5.0
6. 시프러스	2,677	4.5
7. 스위스	1,942	4.3
8. 그리스	1,935	3.7
9. 룩셈부르크	1,694	3.1
10. 벨기에	1,493	2.4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루마니아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에 355.1억 유로 수준이고, 이 중에는 33억 유로 상당의 금보유량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루마니아의 총 대외부채는 2014년 말에 942.5억 유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GDP(2014년 1,516억 유로) 대비 약 62.2%에 해당하며, 중·장기 대외부채는 761.1억 유로, 단기 대외부채는 181.4억 유로(총 대외부채 중 19.2%)이다. 공공부문의 대외부채 규모 및 GDP 대비 공공부문 대외 부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IMF, EC, WB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상환해 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표 11 외환보유고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외환보유고	27.19	28.27	30.86	35.95	37.25	36.40	35.43	35.51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표 12 GDP 대비 공공부문 대외부채의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공부채의 GDP 비중	12.6	13.4	23.6	30.5	34.7	37.8	38.3	44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2.4. 우리나라와의 관계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와 지난 1990년 3월 30일에 수교를 맺었으며, 북한과는 1948년 11월 3일에 수교를 맺은 바 있다. 루마니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2008년 9월)를 맺고 있으며, 체결된 주요 협정으로는 경제과학기술협정('90, 개정 '05), 문화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94), 사증면제각서와 항공운송협정('97), 원자력협력협정('04), 사회보장협정('10) 등이다.[11)]

루마니아 내 한인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41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지상사 임직원(대표, 본부파견, 현지채용), 자영업자(식당, 농장, 여행사 등), 선교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인 부쿠레슈티에 213명, 망갈리아·콘스탄차 지역에 88명, 오라데아에 63명, 브라쇼브·클루즈 등 기타 지역에 48명이 분포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나라 국민은 1만 6,902명이 루마니아에 방문하였다.

루마니아 개방 초기인 1990년대에 한국은 대우자동차 등의 진출로 루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소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루마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개혁 가속화, 한·EU FTA(2011.7. 발효) 영향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제반분야에서 실질 협력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3 2011~2013년 양국 간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한국 → 루마니아)	463	439	439	철강판, 합성수지, 음향기기
수입 (루마니아 → 한국)	371	660	745	자동차부품, 식물성물질, 기계요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표 14 양국 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명	수 출		순위	품 목 명	수 입	
		2012	2013			2012	2013
1	철강판	71	51	1	자동차부품	271	234
2	합성수지	29	49	2	식물성물질	35	178
3	음향기기	29	33	3	기계요소	96	4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11) 한국무역협회(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35&natnCd=RO).

표 15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천 달러)	2011	2012	2013	누 계
한국 → 루마니아	5,289	51,298	–	485,757
루마니아 → 한국	–	90	–	9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3. 루마니아의 농업

3.1. 농업 개요

3.1.1. 기후와 토양

루마니아는 전체적으로 온대기후와 대륙성기후의 중간기후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대륙성기후, 서남부지역은 지중해성기후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 연평균 기온은 10~11°C이며, 여름 평균이 23°C, 겨울 평균이 -3°C이고 남쪽은 11°C, 북쪽은 7°C의 분포를 보인다. 봄·가을은 짧으며 온도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받고, 여름·겨울은 상대적으로 길며 지역별로 해양성기후 또는 지중해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와 비슷하나 습도가 낮은 편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737㎜ 정도이고, 늦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 토양은 토질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며, 1~5등급으로 분류된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대체적으로 남쪽 해안지대는 모래땅이 많아 토양 유실이 심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점토함량이 많아 토양비옥도가 좋다.

3.1.2.농업지대

루마니아의 농업지대는 일반적으로 8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지대는 북서부, 동남부, 남서부 등 3개 지역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북서부지역은 산악지가 많고 사유화된 경지가 대부분이며 주로 농가들은 목축업을 한다. 이 지역 작물재배 농가는 대부분 경지면적이 작은 소규모 생계농이다. 동남부지역은 국유지가 많으며 평야지대가 많아 작물재배에 유리하다. 이 지역에는 영농법인이 대규모 경작을 하며 주요 재배작물은 기계화 재배가 용이한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또한 이 지역의 토양은 체르노지움 토양으로 비옥도가 중간정도이며, 관개시설이 없어 한발 피해를 받기 쉽다. 남서부지역은 토양에 사질토 성분이 많고 지중해성기후로 인하여 채소농사 및 포도농사에 적합하다.

3.2. 농업 현황

3.2.1. 루마니아 농업의 특징

루마니아 경제에서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이 루마니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12](2014년 기준)이지만, 농촌 및 경지 면적과 농업부문의 고용률 면에서 중요성은 훨씬 크다. 루마니아의 생산 가능한 농지면적은 1470만 ha로 국토면적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1000만 ha는 경작지로, 330만 ha는 목초지로, 22만 ha는 포도재배지로, 20만 ha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휴농지가 약 100만 ha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DTZ Echinox 2013).

농업 인구 지표에서는 국가 전체에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생산가능인구 중 농업부문의 고용비율은 2012년에 29%를 차지하고 있다.[13]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총 고용 중 농업부문의 고용인구의 36%가 55세 이상이며, 농업인구의 노령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농업의 GDP 기여도와 농업인구 규모의 차이는 루마니아 농업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다. 즉, 이 커다란 차이는 생산성이 낮은 인력이 낙후된 기술과 낡은 농기계 및 장비의 현대화 지연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 또한 생계형 및 반생계형 영농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3.2.2. 루마니아 농업 현황

루마니아의 주요 작물은 밀, 보리, 콩, 감자, 옥수수, 해바라기씨, 유채씨, 포도, 토마토 등이다. 루마니아 와인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밀과 옥수수는 자급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루마니아가 세계 10대 생산국이다.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터키, 독일, 헝가리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루마니아 농업 총 생산액은 2014년 153억 유로이며, 이 중 작물 생산액이 113억 유로이고 축산물 산출량은 40억 유로이다. 2012년에 한여름 가뭄 및 고온현상으로 농작물 작황은 큰 영향을 받았다. 밀 생산량은 30%, 옥수수 생산량은 60% 가량 줄어드는 등 농업분야 생산규모는 130억 유로로 최근 5년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KOTRA 2014). 2013년 들어 루마니아는 밀, 옥수수, 보리 등의 풍작에 힘입어 농업 성장률은 23.4%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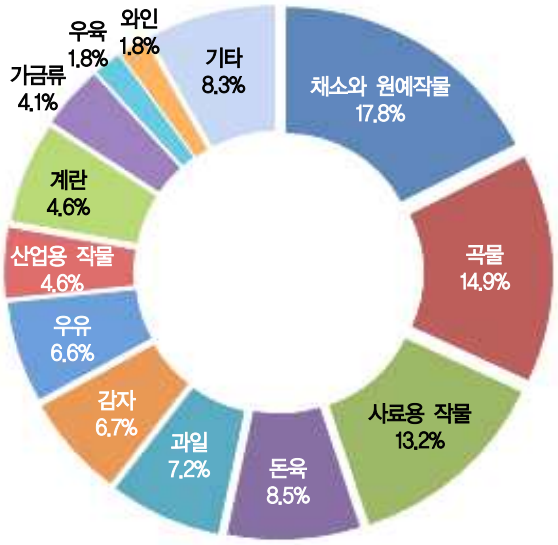
1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The World Factbook 참조.
13) 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은 각각 28.6%와 42.4%임.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The World Factbook 참조.

표 16 농축산물 총생산액 현황

구성요소	2012	2013	2014	2013/2012	2014/2013
	백만 유로			증감률(%)	
곡물 생산액	9,008.0	12,184.6	11,338.2	35.3	−6.9
□ 곡물	2,807.1	4,500.9	3,826.6	60.3	−15.0
○ 밀	1,056.5	1,350.7	1,247.6	27.8	−7.6
○ 호밀	3.7	4.4	5.1	18.9	15.9
○ 보리	220.2	356.6	353.0	61.9	−1.0
○ 오트밀과 여름 혼합곡물	90.7	93.5	78.1	3.1	−16.5
○ 옥수수	1,395.8	2,638.1	2,090.4	89.0	−20.8
○ 쌀	14.8	15.5	14.7	4.7	−5.2
○ 기타 곡물	25.6	42.2	37.8	64.8	−10.4
□ 산업작물	783.5	1,237.9	1,155.2	58.0	−6.7
○ 유지종자 및 견과류	696.6	1,125.5	1,029.1	61.6	−8.6
○ 단백질 작물	27.6	29.3	30.4	6.2	3.8
○ 담배원료	1.8	1.6	1.6	−11.1	0
○ 사탕무	27.3	39.4	53.6	44.3	36.0
○ 기타 산업작물	30.2	42.1	40.5	39.4	−3.8
□ 사료작물	1,436.4	1,704.7	1,611.4	18.7	−5.5
□ 채소 및 원예작물	2,094.3	2,023.8	2,227.4	−3.4	10.1
□ 감자	678.4	1,288.5	1,262.1	89.9	−2.0
□ 과일	989.5	1,087.1	992.1	9.9	−8.7
□ 와인	192.4	306.2	215.8	59.1	−29.5
□ 올리브유	–	–	–	–	–
□ 기타 곡물제품	26.4	35.5	47.8	34.5	34.6
축산물 생산액	3,992.7	3,907.6	3,979.2	−2.1	1.8
□ 축산	1,751.4	1,911.4	2,019.3	9.1	5.6
○ 쇠고기	287.6	303.1	315.3	5.4	4.0
○ 돼지고기	865.5	965.3	999.5	11.5	3.5
○ 말고기	26.8	21.9	28.2	−18.3	28.8
○ 양과 염소	194.4	195.7	214.0	0.7	9.4
○ 가금류	376.5	424.7	461.5	12.8	8.7
○ 기타 동물	0.7	0.7	0.8	0	14.3
□ 축산물	2,241.2	1,996.2	1,959.9	−10.9	−1.8
○ 우유	1,170.2	1,011.6	1,038.7	−13.6	2.7
○ 계란	800.1	662.4	593.8	−17.2	−10.4
○ 기타 축산물	270.9	322.2	327.4	18.9	1.6
농축산물 총생산액	13,000.6	16,092.2	15,317.4	23.8	−4.8
총부가가치	6,209.1	7,658.1	6,979.9	23.3	−8.9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그림 2 농축산물 생산액 구성 비중(2009~2013년 평균)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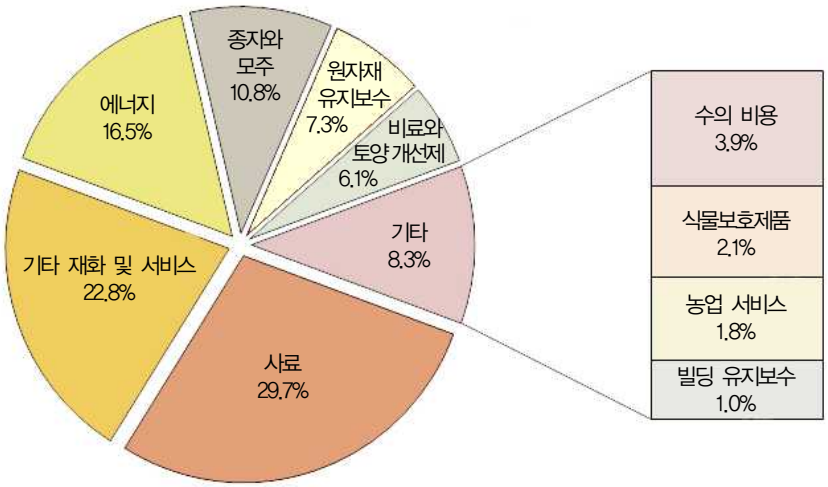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들의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축산을 위한 사료가 2014년 27억 유로의 규모 및 2009~2013년 평균 29%의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2014년 19억 유로 및 2009~2013년 평균 16% 사용되었다.

표 17 농업 투입 현황

구성요소	2012	2013	2014	2013/2012	2014/2013
	백만 유로			증감률(%)	
총 중간재 소비액	8201.1	10,098.1	10,049.0	23.1	-0.5
종자 및 모주	698.9	985.2	1,065.5	41.0	8.1
에너지	1,517.4	1,925.8	1,882.1	26.9	-2.3
비료 및 토양 개량제	648.2	756.1	705.6	16.6	-6.7
식물 보호 제품	244.2	323.1	329.5	32.3	2.0
수의 비용	302.6	323.6	327.7	7.0	1.3
사료	2,747.3	2,940.3	2,699.3	7.0	-8.2
원자재 유지 보수	518.5	603.7	715.5	16.4	18.5
빌딩 유지 보수	94.1	100.4	115.3	6.7	14.8
영농 서비스	120.0	168.4	-	40.3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291.9	1,953.2	2,021.6	51.2	3.5
고정자본 소비액	2,614.6	3,017.5	2,739.9	15.4	-9.2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그림 3 중간재 소비비중(2009~2013년 평균)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농업생산액은 2014년 170억 유로 규모이다. 2014년 총 부가가치액은 70억 유로이며, 농업 소득은 2005년에 비해 42.2%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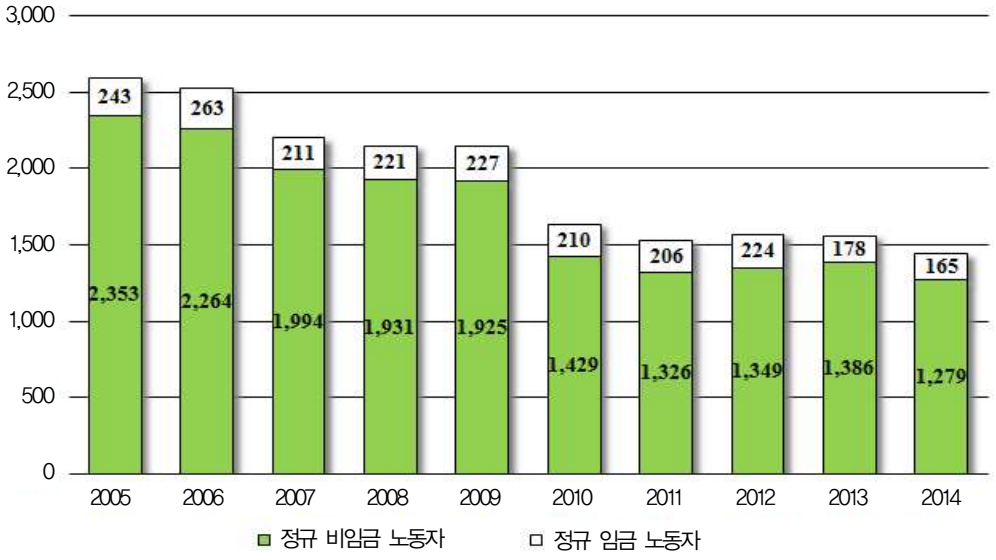
표 18 농업 소득 현황

구성요소	2012	2013	2014	2013/2012	2014/2013
	백만 유로			증감률(%)	
농업 생산액	14,410.2	17,756.2	17,028.9	23.2	−4.1
곡물 생산액	9,008.0	12,184.6	11,338.2	35.3	−6.9
축산물 생산액	3,992.7	3,907.6	3,979.2	−2.1	1.8
동물	1,751.4	1,911.4	2,019.3	9.1	5.6
축산물	2,241.2	1,996.2	1,959.9	−10.9	−1.8
농업 서비스	120.0	168.4	–	40.3	–
2차 생산 활동	1,289.6	1,495.5	1,542.7	16.0	3.2
− 중간재 소비액	8,201.1	10,098.1	10,049.0	23.1	−0.5
= 총 부가가치액	2,614.6	7,658.1	6,979.9	23.3	−8.9
− 고정자본 소비액	20.8	3,017.5	2,739.9	15.4	−9.2
− 세금	1,356.7	21.0	20.9	0.9	−0.5
+ 보조금	1,356.7	1,664.9	1,655.8	22.7	−0.5
= 요소소득	4,930.5	6,284.5	5,874.9	27.5	−6.5
농업 소득(2005=100)	116.1	142.6	142.2	22.8	−0.3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농업 인력이 투입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투입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규 비임금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정규 임금 노동자보다 정규 비임금 노동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기업농보다 자급형 농가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농업인력 투입 추이(2005~2014년)



주: 단위는 1,000 AWU임. AWU: Annual Work Unit which is equivalent to a worker employed on a full time basis for one year.
자료: Eurostat, 2015년 2월 업데이트.

루마니아 농산물의 총 수출액은 2013년에 53억 유로이고 총 수입액은 49억 유로이다. 수출에서는 원자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입에서는 최종 소비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농산물 무역 대상을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EU 국가들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EU 시장은 루마니아 농업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EU 국가들과 무역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지만, 비(非)EU 국가들과 무역에서는 반대로 무역수지가 흑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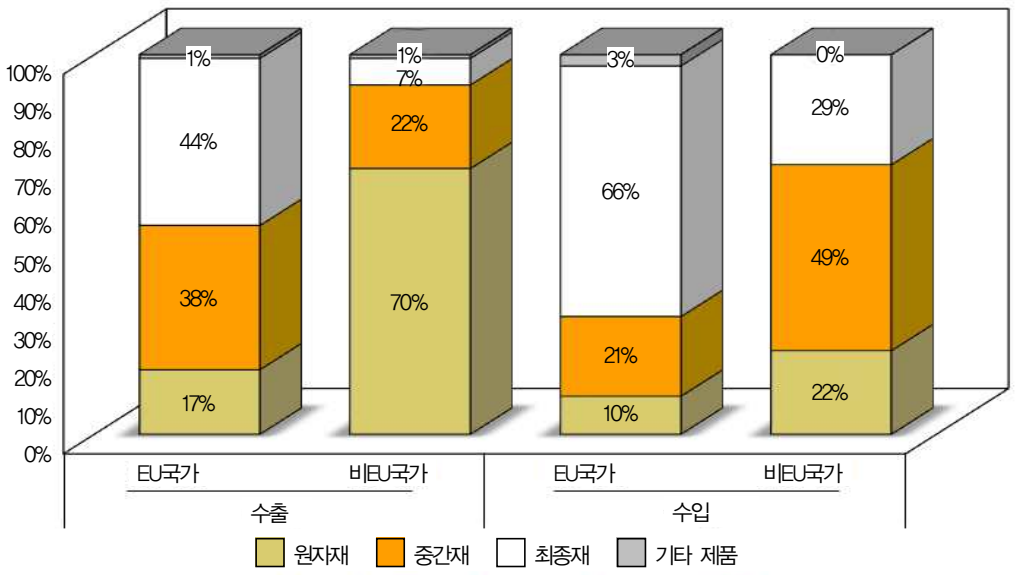
제품별 및 국가그룹별로 농산물 무역을 살펴보면, 원료로 사용되는 루마니아의 농산물은 대부분 비EU 국가들로 수출되며 중간재와 최종 소비재는 EU 국가들로 수출된다. 중간재는 비E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비율(49%)이 E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비율(21%)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절대금액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종 소비재는 대부분 EU 국가들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9 2013년 농산물 무역 현황

구성요소	총 무역액	EU국가와의 무역		비EU국가와의 무역	
	백만 유로	백만 유로	2013/2012 증감률(%)	백만 유로	2013/2012 증감률(%)
수출	5,337.7	3,196.5	10.7%	2,141.2	78.0%
원자재	2,037.3	538.9	−15.1%	1,498.4	89.7%
중간재	1,695.9	1,217.6	30.7%	478.4	77.4%
최종재	1,549.7	1,398.9	9.2%	150.8	14.2%
기타 제품	54.7	41.0	1.2%	13.7	19.1%
수입	4,942.4	3,983.3	4.8%	959.2	−1.2%
원자재	622.6	415.0	−11.5%	207.6	22.1%
중간재	1,318.8	851.7	−5.6%	467.1	−10.1%
최종재	2,910.9	2,629.6	12.1%	281.3	1.5%
기타 제품	90.2	87.0	4.7%	3.2	−21.3%
무역 수지	395.3	−796.8	−	1,182.1	−
원자재	1,414.8	124.0	−	1,290.8	−
중간재	377.2	365.9	−	11.3	−
최종재	−1,361.2	−1,230.7	−	−130.6	−
기타 제품	−35.5	−46.0	−	10.5	−

주: 기타 제품은 물, 조미료와 같은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제품들을 의미함.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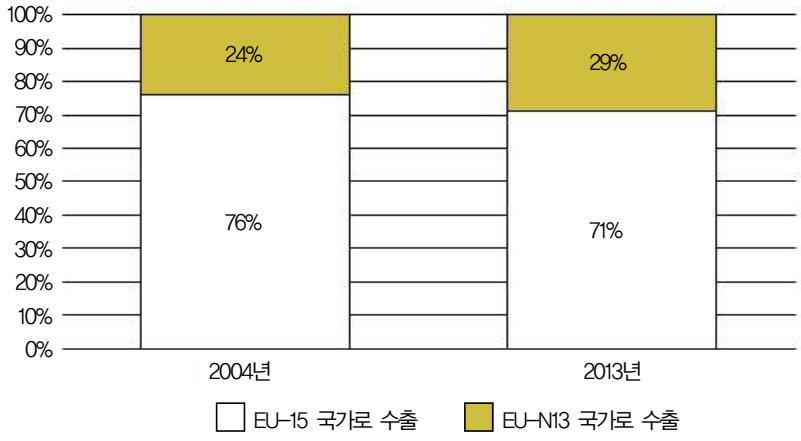
그림 5 2013년 제품별 농산물 교역 구조



자료: 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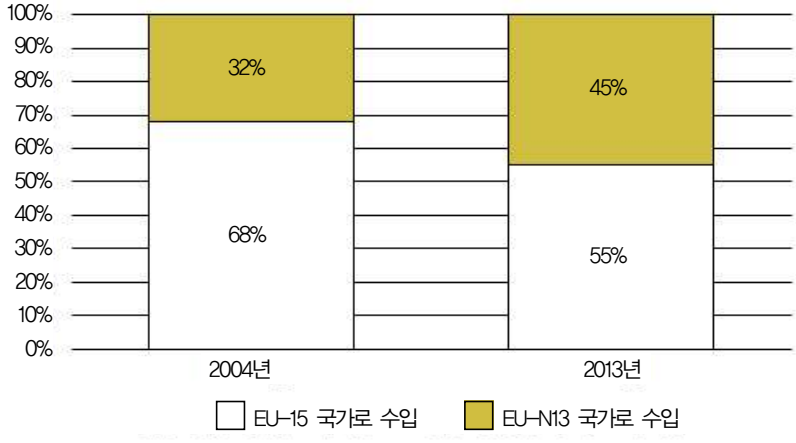
EU 회원국 내 농산물 수출입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EU-15국이 나머지 국가들보다 중요한 시장임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6 EU 회원국 내 농산물 수출 구성 비율



자료: 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그림 7 EU 회원국 내 농산물 수입 구성비율



자료: 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루마니아는 생계형 및 반생계형 영농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0년 현재 농지규모가 2ha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74.3%에 달하며, 농지규모가 10ha미만인 농가의 비율은 97.8%에 이른다. 단위가축 수를 보더라도 이 특징은 잘 나타나는데, 5단위 이하를 기르는 농가가 2010년에 96.5%에 이른다. 농업 인력의 노령화도 주목해

야 할 루마니아 농업부문의 특징이다. 2010년에 55세 이상 연령의 농장소유주가 60.4%이었으며, 농가의 절대 숫자에서도 2003년에 비해 35세 이하 농장소유주 수는 감소한 반면, 64세 이상 농장소유주 수는 증가하였다.

표 20 농가 현황

농가 분류		2003		2010	
기준	구간	합계	비중(%)	합계	비중(%)
사용 중인 농지 면적(UAA)	2 ha 미만	3,252,680	72.5	2,866,440	74.3
	2–5 ha	952,400	21.2	727,390	18.8
	5–10 ha	218,880	4.9	182,440	4.7
	10–20 ha	37,410	0.8	43,610	1.1
	20–30 ha	5,530	0.1	9,730	0.3
	30–50 ha	3,950	0.1	8,210	0.2
	50–100 ha	3,790	0.1	7,480	0.2
	100 ha 이상	10,270	0.2	13,730	0.4
단위 가축 수(LSU)	0	906,230	20.2	1,032,420	26.8
	0–5	3,379,960	75.4	2,688,710	69.7
	5–10	160,830	3.6	88,150	2.3
	10–15	19,360	0.4	19,430	0.5
	15–20	6,870	0.2	9,460	0.2
	20–50	9,050	0.2	15,680	0.4
	50–100	1,670	0.0	3,530	0.1
	100–500	750	0.0	1,350	0.0
	500 이상	180	0.0	310	0.0
소유주 연령	35세 이하	400,410	8.9	280,440	7.3
	35–44세	541,020	12.1	609,610	15.8
	45–54세	846,210	18.9	636,370	16.5
	55–64세	993,840	22.2	868,910	22.5
	64세 이상	1,1703,410	38.0	1,463,720	37.9
총계		4,484,910	100.0	3,859,030	100.0

주: UAA: 사용 중인 농지 면적(Utilized Agricultural Area).
LSU: 한 마리의 소와 동등한 가축(축산)의 단위(Livestock Units which is equivalent to a diary cow).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농장구조조사 2003과 농업인구조사 2010. 2013년 10월 업데이트).

3.3. 농업정책

루마니아는 공산화 이전 '유럽의 빵공장(breadbasket of Europe)'이라 불릴 정도로 농업부문의 강국이었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및 Drost, 2013). 오토만(Ottoman) 제국 시대(16~18세기)에는 세계 4번째 많은 규모로 밀을 수출할 만큼 곡물 생산으로 유명했다. 19세기에는 루마니아 전체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허술하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특별한 농업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루마니아 농업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쟁 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농업정책은 크게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농지를 더 작은 규모로 나눈 것이다. 소규모 경작지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농업으로부터 노동력이 이탈되는 현상의 주원인이었다. 이는 정권이 산업화·공업화 중심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농업의 기계화[14]와 농업생산의 집단화 정책을 펴는데 유리했다. 그러나 공산정권 주도의 과도한 중공업 육성정책과 집단농장화로 농업에 대한 투자와 농업생산의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말았고, 결국 농업은 몰락하였다. 젊고 유능한 인력들은 농촌을 빠져 나갔으며,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또한 기계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지 않았으며, 국영농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비효율적으로 경작되었다. 그 결과 루마니아의 1 ha당 옥수수 생산량은 1,780kg으로, 헝가리보다 1,000kg 정도 더 낮았고, 이 시기에 프랑스는 4,000kg 이상이었다. 또 다른 지표로 GDP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1930년에 40%에서, 공업화가 가속화되는 1960년에는 약 30%로 하락했으며, 1970년에는 20%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1980년에는 13.7%를 기록하였다.

표 21 공산주의 시대 농장형태

단위: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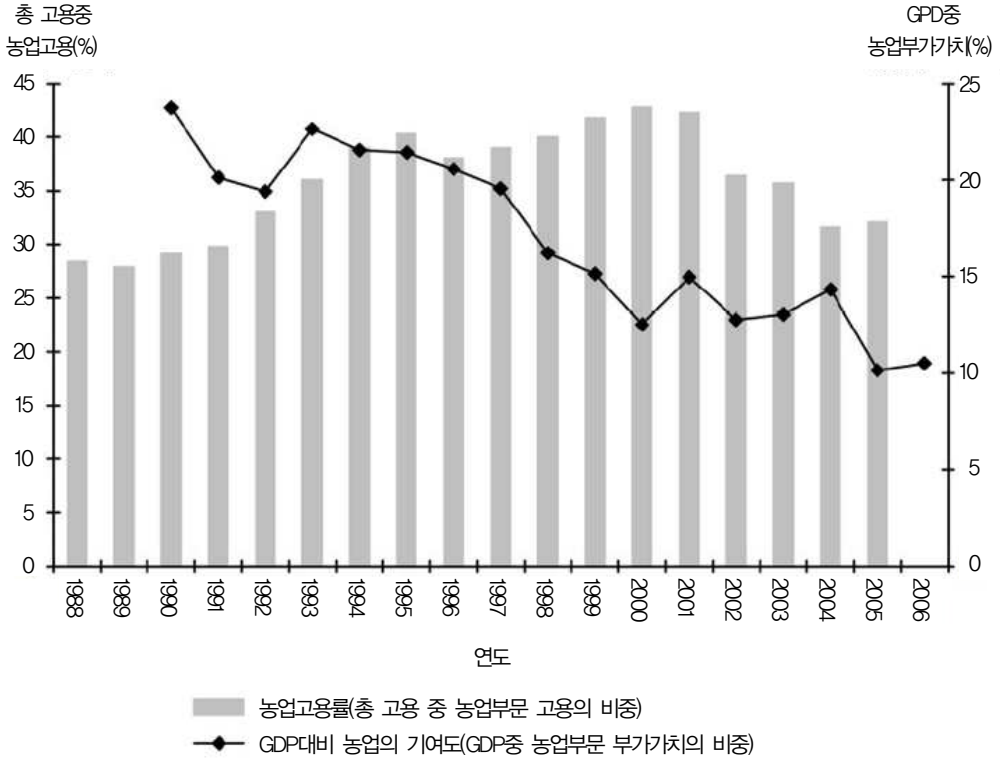
구 분	경작 중인 농지면적(UAA) 대비 비중	평균 규모
국영농장	29	5,001
협동농장	59	2,374
개인 생산자	12	0.5

자료: Drost(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14) 1960년대 초반부터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기술과 농기계를 국가가 독점하여 생산 · 보급함(Drost, 2013).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에 농업 집단화가 해체되고 농지사유화가 진행되었지만 체제전환 시기의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상황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때문에 루마니아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루마니아 정부는 농지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상환(restitution)과 판매(sale)를 혼합한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농경지의 재사유화로 인해 도시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과 농업부문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이 증가하는 두 경향이 강해졌으며, 공산주의 시대에 비해서 농경지가 더 소규모로 분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독점에서는 벗어났지만 농업 투입재 및 곡물 구매자의 독점은 여전하였고 관개체계가 폭동으로 파괴되었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농기계가 분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농기계들은 작아진 농지에 효율적이지 않았고 농가의 낮은 구매력 때문에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 어려웠다. 한편으로 이 체제전환 시기에 루마니아 농업은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 원인은 농산물 출하에 대한 정부통제와 농산물 품질관리의 부재, 그리고 빈약한 농업

그림 8 공산주의 붕괴 이후 총고용 및 GDP 대비 농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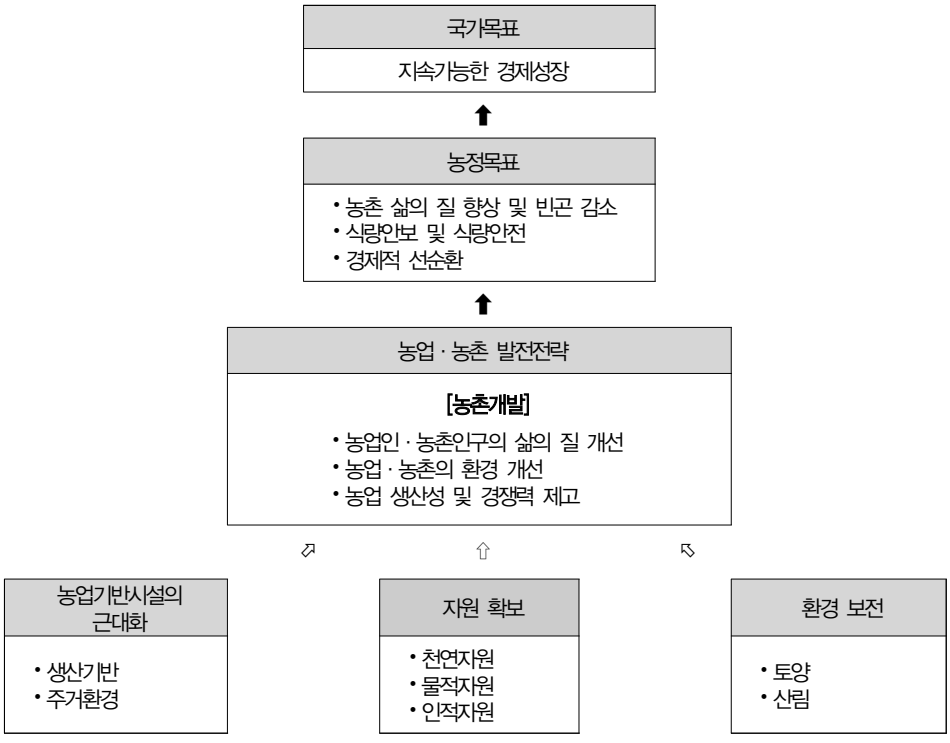
자료: Drost(2013).

금융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래로 농업부문 정부정책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효율성 강화, 기술수준 향상, 금융 등 농업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비료 구입, 트랙터 생산, 관개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7년 EU 가입 시점 당시 EU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루마니아의 농업환경은 안정감을 가지기는 했으나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농지규모는 매우 작아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구조와 부합되기 어려웠다. 정부의 보조로 농기계 등 기술 공급이 증가했지만 노후화되었고, EU 평균의 기술보유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트랙터 1대가 담당해야 하는 농경지 크기가 루마니아에서는 50.5ha인 반면, 나머지 EU 국가 평균은 19ha이다. 또한 EU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농업생산성은 낮으며 GDP 대비 농업의 비중과 농업부문 고용률은 높다.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하여 농업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낙후된 농업부문을 현대화시키고 농촌지역을 개발하며

그림 9 루마니아 농업부문 목표와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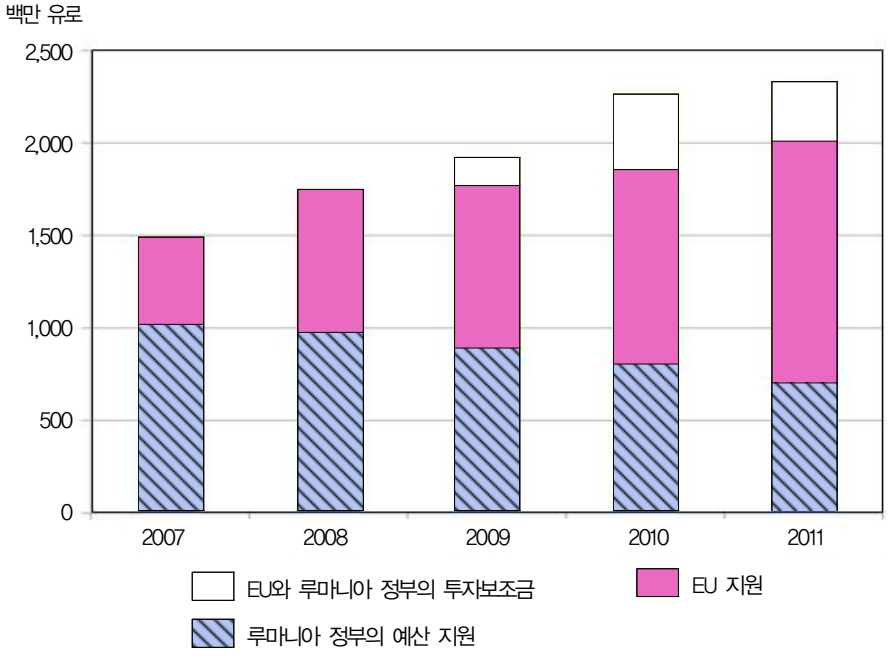


자료: Otiman et al.(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농업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생산기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 농업 기반시설을 근대화시키고, 천연자원, 물적 자원, 인적자원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농기계 생산 등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과 산림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통해 루마니아 정부는 농촌인구의 빈곤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식량안보 및 식량안전을 모색하고, 농업부문이 경제적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현재 예산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의 체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007년 이래로 루마니아 농업부문이 받는 총 지원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 순수한 루마니아 정부의 농업부문 예산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EU의 보조금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10 EU 가입 이후 루마니아 농업 지원 현황



자료: Luca(2013).

루마니아는 EU로부터 공동농업정책의 보조금을 2013년 한 해에 총 25억 6,500만 유로를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다. 2008~2013년 기간 동안 전체 EU 보조금 가운데 33.2%

정도가 직접지불의 형태[15]로 3.9%가 시장관리정책[16]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다. 루마니아는 다른 구(舊)공산국가들과 유사하게 농촌지역개발[17]에 집중하여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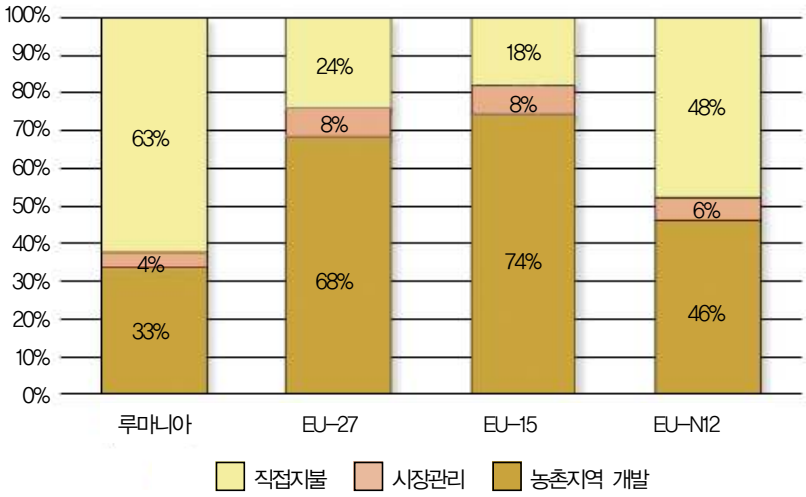
표 22 루마니아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3년 지출액	2008~2013년 비중
직접지불	1,086.8	33.2
시장관리	122.4	3.9
농촌지역개발	1,356.2	62.9
합계	2,565.4	100.0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11 2008~2013년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의 분포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U의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은 <표 22>에서와 같이 회원국들 간 차이가 있는데, 보조금 상한액은 EU 재정의 기여도, 회원국들의 경제력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15)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농산물 가격지지에 대한 지원을 줄임에 따라 감소된 농업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임. 더 자세한 사항은 이상만(2012) 참조.

16) 과거 정부가 농산물 가격 관리를 위해 간접적으로 농업인 소득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 관리 없이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함. 더 자세한 사항은 이상만(2012) 참조.

17)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환경 개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이상만(2012) 참조.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국들은 이러한 기준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지원액 규모를 늘리고자 EU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표 23 2013년 EU-27 국가의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유로

EU-27 회원국	직접 지불	시장관리	농촌지역개발	총 지출액
벨기에	567	78	78	722
불가리아	494	43	396	933
체코	824	14	424	1,262
덴마크	939	7	106	1,052
독일	5,254	101	1,430	6,785
에스토니아	92	3	113	209
아일랜드	1,251	6	352	1,608
그리스	2,282	63	672	3,017
스페인	5,237	591	1,284	7,112
프랑스	7,968	634	1,279	9,880
이탈리아	3,960	701	1,441	6,102
시프러스	44	6	21	71
라트비아	133	15	151	300
리투아니아	346	11	254	611
룩셈부르크	34	0.4	13	47
헝가리	1,203	69	585	1,857
몰타	5	0.9	11	16
네덜란드	823	84	103	1,010
오스트리아	706	24	533	1,263
폴란드	2,770	415	1,851	5,036
포르투갈	649	120	590	1,359
루마니아	1,087	122	1,356	2,565
슬로베니아	130	9	113	252
슬로바키아	354	9	320	683
핀란드	532	10	289	830
스웨덴	689	13	276	978
영국	3,286	42	749	4,077
EU-27 합계	41,658	3,193	14,789	59,640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4. 맺음말

현재 루마니아 농업 상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가 대부분이 영세하며 고령화 추세에 있고, 농업기술은 낙후되었으며 농기계 활용도가 낮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으로 인해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업부문에 투자하고 있고, 원래 우수한 기후조건과 드넓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과 물류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루마니아의 농업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제 루마니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농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농정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젊은 농촌노동력들이 도시나 해외로 취업을 위하여 농업을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채소, 과일 등은 품질이 좋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개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 및 자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89년 12월 혁명 전까지 루마니아는 북한과 유사한 1인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루마니아의 탈사회주의 과정은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할 때 전개과정의 전망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2015년은 한·루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두 나라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은 물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 교류가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부쿠레슈티 무역관. 2014. 「루마니아」. KOTRA 국가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상만. 2012.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원혁. 1998.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사례연구: 루마니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2011. 「루마니아 농업투자환경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2014. 「2015년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Drost, Simone. 2013. *The Agricultural Sector in Poland and Romania and Its Performance under the EU-Influence*. Osteuropa-Instituts.
DTZ Echinox. 2013. *Agricultural Land Investment in Romania 2013*. DTZ Echinox.
European Commission. 2015.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15. *Member States Factsheets: Romania*. European Commission.
Luca, Lucian. 2013. *Changing of Agricultural Policies in Romania during Preparation of EU Accession and Thereafter*.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Otiman, Păun Ion et al. 2014.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gri-food Sector and Rural Area – Horizon 2030*.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8. pp.510-517.

참고사이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6r2142b).
주 루마니아 대사관 (http://rou.mofa.go.kr/korean/eu/rou/main/index.jsp).
한국무역협회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35&natnCd=RO).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o.html).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